

원통(元統) 2년(1334년) 5월 원나라 황제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벼슬에 있던 '독만달 아(禿滿達兒)'의 요청으로 고려 사경승(寫經僧, 불경의 글과 그림을 필사하는 스님)이 그린 변상도(變相圖,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가르침을 알기 쉽게 표현한 불화)가 공개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윤수 씨가 6월 23일에 공개한 고려시대 변상도의 전체 모습.

고려 사경승이 그린 변상도 공개

원고위관료 발원, 시기 가장 앞서고 우수

<고려사>에 따르면 원나라 황제가 총렬왕 때만 다섯 차례 200여 명의 일류 사경승을 공출할 정도로 고려 사경승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발원자가 확실하게 밝혀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성 시기 또한 가장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원나라에 파견된 고려 사경승이 그린 변상도 가운데 가장 오래 된 보물 752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34>(호림박물관 소장, 1334년 9월 조성) 변상도의 경우 발원자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전윤수 아주문물학회 대표가 6월 23일 학계에 공개한 고려 변상도는 이상욱 한국 박물관회장(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앞에 금가루로 그린 것이다. 가로 54cm, 세로 22cm 크기의 감색 종이에 현수(懸首)보살이 부처님을 찬양하는 장면 등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본문까지 포함한 전체

는 가로 7.7m 세로 3.4m 크기로 두두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변상도 오른쪽에 적혀 있는 110여 자의 발원문에 따르면, 원나라 원통 2년 5월에 '독만달아'가 발원해 조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독만달아'는 영록대부 휘정원사(정1품)로 비서실장에 해당)와 연경사사(불경과 불사의 숙원사업을 관장하는 정2품 벼슬)를 겸하고 있던 원나라 최고위층 관료.

원로서지학자 천해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우택 동국대 교수(고려불화) 등이 살펴본 결과 영록대부나 연경사사 등의 품계와 벼슬은 고려에는 없고 원에만 있던 것이기 때문에 발원자는 원나라 사람이 확실하다. 또한 감색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고려불화만의 특징이며 변상도의 화면 구성이 국보 206호 해인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변상도 목판>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고려 사경승이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정우택 교수는 "발원자가 분명하면 이번 변상도가 발견됨으로써 고려 사경승의 우수성이 확실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필로 화려하면서도 치밀하게 묘사한 것이, 현존하는 고려 변상도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축에 드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절(12)

석탑에 효를 새긴 까닭은?

신라 오악(五嶽)의 하나인 지리산, 이 산은 항상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다. 이 산에는 그 명성답게 천은사, 천은사, 쌍계사, 실상사 등 신라시대의 명찰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절이 화엄사이다. 화엄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17세기 해안(海眼)이 지은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화재로 불타 없어진 뒤에 작성한 것이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오히려 이보다 분명한 화엄사의 역사는 사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과 석등이다.

이 석탑과 석등에는 우리나라 석탑에서 유일하게 창간설화가 조각되어 있다. 네 마리의 사자가 기둥처럼 받치고

한 석탑이다. 특히 연기조사와 어머니를 등장시킨 것은 매우 이채로운 일이다. 더군다나 부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머니가 서있으니, 어떻게 이러한 파격이 가능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묘사 것일까? 그것은 신라가 통일된 이후 중점적으로 펼친 효의 정책 때문일 것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로서는 서로 다른 국가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충(忠)이 필요했고 충을 요구하려면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682년 신문왕 때 세운 교욱기관인 국학에서 효경(孝經)을 가르치고 788년 원성왕 때 실시한 과거시험인 독서삼품과에서도 효경을 주요 과목으로 정했다. 연기조사 활동했던 경사왕 때에는 충담(忠談)스님에게 백성을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 국보 35호. 8세기 후반 화엄사의 창간설화를 형상화한 석탑이다.

삼국통일 이후 새로운 지배질서 필요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신라 '효' 상징

있는 기단의 중심에는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서 있고 석등의 기둥에는 연기조사가 한쪽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고 있다. 연기조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했는데, 1979년 신라시대의 <대방광불화엄경>(755년,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96호)이 발견됨에 따라 연기조사가 경덕왕 때 황룡사의 승려임이 밝혀졌다.

8세기 중엽 이후 석탑에는 조각장식을 새기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전에는 탑의 조각이라 해야 1층 문 양 옆에 새긴 인왕상 정도였는데, 이 때부터는 불, 보살, 팔부중, 사천왕, 천인, 12지 등 매우 다양해졌다. 사사자삼층석탑은 환조로 조각된 사사자와 인왕상, 부조로 새겨진 인왕상·사천왕상·보살상·천인상 등 각종 조각이 풍부

편안하게 다스리는 노래인 안민가(安民歌)를 부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다." 효와 충이 왜 필요하고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이 노래 속에 명료하게 밝혀져 있다. 또한 경덕왕 때 불국사는 김대성(金大城)이 이승의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이요, 석굴암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이다. 따라서 신라 오악의 하나인 지리산에 그것도 절 꼭대기에 보란 듯이 연기조사의 효를 탑에 새긴 까닭은 통일 이후 조정에서 절실했던 지배질서의 확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에 새겨진 조각은 통일신라 효를 상징한 드라마틱한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송현주 씨, 종문연서

불교는 종교인가? 풍만지갑이 들리지만 불교가 실제로 어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근대=서구=기독교'란 인식이 팽배하던 개항(1876년~해방(1945년) 시기 기독교가 불교를 비판하던 주된 내용은 '미신'과 '우상숭배'로 정리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

"당시 불교지식인들은 저항과 수용, 타협, 변형이라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서구의 종교 개념이나 기독교 중심적 신의 개념에 '대(對)한' 것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종교로서의 불교의 위치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는 '철학적 종교'라는 것, 무신론이지만 '모든 종교보다' 고등한 발전단계'라는

"지식인들 저항·수용·타협 통해

한국 근대불교의 정체성 되찾아"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강돈규)가 6월 21일 '근대 한국의 종교 변용'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송현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씨는 삼국 이래 1500여년의 전통을 지닌 불교가 서구 기독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를 살펴봤다. 1910~30년대 불교집지가 분석대상.

'근대 한국불교에서의 종교정체성 인식'이란 주제 발표에서 송씨는

것, 그리고 '해탈과 무아를 중심으로 한 선정의 종교로서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 등이었다.

"'미신'과 '우상숭배'라는 비판은 기독교가 유입된 이래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들의 신앙관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기독교의 종교적 근거에 불교가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맞춰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논평을 맡은 김경집(진각종 종학연구소 연구원)씨의 말이다.

다양해진 불교학계 여류 워크숍

불교회화·단청·범패 강의 체험

'참나를 찾아...' 간화선 주제 특강

여름방학이던 연구실을 벗어나 산사(山寺)를 찾아 직접 수행해 보는 게 요 몇 년 새 불교학계의 모습, 올해는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등 여류 워크숍이 한층 다양해졌다.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12~13일 중앙승가대에서 '불교문화예술의 이해와 체험'을 주제로 제6회 여류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회화와 단청, 범패, 티베트 불교미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도 듣고,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다. 딱딱한 이론식 강의가 아니라 슬라

이드나 시연을 통해 최대한 현장감을 살릴 계획. 범패의 경우 신창자(신창순 20명)에 한해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다. (02)2260-3128

전통적인 선 수행을 원한다면 16~18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선학회 제4회 여류 워크숍을 찾아볼 만하다. 2박3일 동안 간화선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철저히 좌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02)2260-8507

활기 찾은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이사회, 국내·국제학술회 개최 등 결정

한문원전 강독 중심으로 운영해 온 한국전통불교연구원(원장 허가·금강선원장)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일(6월 24일)에 맞춰 내년부터 매년 국내학자 초청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2005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8~9월경

국제학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6월 24일 이사회 결정내용이다. 연구원장 허가 스님은 "국내·외 불교학

연구 방법과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규모보다 내실있는 기발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전통불교연구원은 故 장봉 김지경 박사(1931~2001)가 1976년 설립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이 2001년 이름을 바꿔 재창립된 단체다.

육법등(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두려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이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려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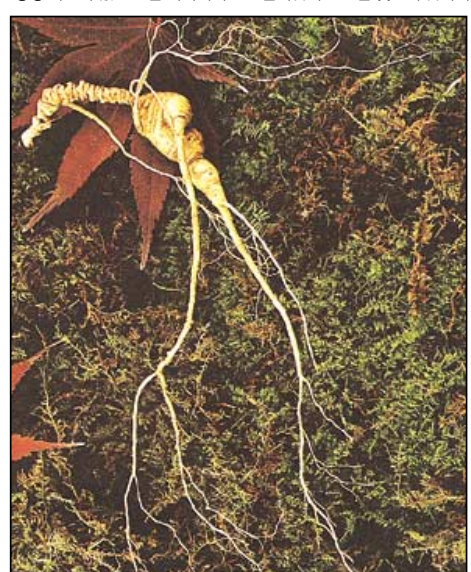
충만 및 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혼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광중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견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억제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嚴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體力를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
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願望에 마음대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